

단원 개관

이 단원은 추론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전쟁과 평화라는 세계적인 문제를 어린이의 시각으로 다룬 글을 읽고,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주제를 파악한 뒤에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나아가 현실과 닮은 게임 속 전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하였다.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난감 무기 사용에 대한 어린이의 의문으로 시작하는 「무기 팔지 마세요」를 제재로 선정하였으며, 사회 교과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학습 목표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쓸 수 있다.

성취 기준

영역	성취 기준
읽기	[6국02-03] 글을 읽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나 주제를 파악한다.
문학	[6국05-02]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교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6국05-05]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교수·학습 내용

수업 과정		교수·학습 내용
도입	생각 열기	글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이야기하기
전개	학습 활동 1	「무기 팔지 마세요」를 읽고 물음에 답하기
	학습 활동 2	「무기 팔지 마세요」의 주제 쓰기
	학습 활동 3	낱말에 알맞은 뜻을 찾아 줄로 이어 보기
	학습 활동 4	「무기 팔지 마세요」의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 펼치기
	학습 활동 5	「게임일까, 현실일까」를 읽고 전쟁 게임이 어떤지 생각해 보기
정리	배움 다지기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의 생각 표현하기

핵심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다양한 상황이나 자료, 담화, 글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만드는 능력이다.

지도상의 유의점

- 세계 문제에 관해 생각할 문제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관심 범위를 넓힌다.
- 사진이나 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추상적 개념의 평화와 경험해 보지 못한 무기나 전쟁을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찬성’ 또는 ‘반대’의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히지 않고 논리적인 전개를 갖춘다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수용하도록 한다.

도입

▶ 글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이야기하기

- 「전쟁은 놀이가 될 수 없습니다!」를 읽어 본다.
- 글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이야기하기
 - 전쟁은 무섭다.
 - 장난감 무기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 전쟁놀이를 하다가 다친 친구들을 본 적이 있다.

전개

1 「무기 팔지 마세요」를 읽고 물음에 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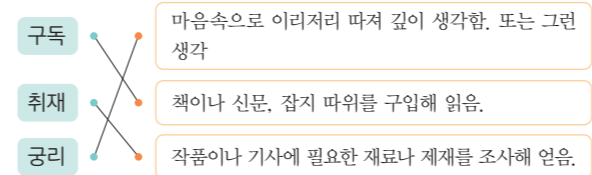
- 1 보미가 세계 평화까지 걱정한 일의 시작은 무엇인가요?
 - 어느 날 교실에 들어섰을 때 콩알만 한 총알이 보미의 이마를 때린 것으로 시작했다.
- 2 ‘평화 모임’이 반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무기와 전쟁을 반대한다.
- 3 ‘평화 모임’에서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전쟁 반대의 실천 방법으로 제안한 것은 무엇인가요?
 - 전쟁놀이하지 않기, 장난감 무기 버리기

2 「무기 팔지 마세요」의 주제 쓰기

- 「무기 팔지 마세요」를 읽고 내용을 파악한다.
- 「무기 팔지 마세요」의 주제를 쓴다.
 - 평화를 위해 장난감 무기뿐 아니라 나아가 진짜 무기도 만들거나 팔지 말아야 한다. 무기가 있으니 전쟁과 싸움이 있는 것이다.

3 낱말에 알맞은 뜻을 찾아 줄로 이어 보기

- 제시된 낱말과 뜻을 읽어 본다.
- 낱말에 알맞은 뜻을 찾아 줄로 이어 본다.



4 「무기 팔지 마세요」의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 펼치기

- 「무기 팔지 마세요」의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 본다.
 - 무기는 만들지도, 팔지도 말아야 한다.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나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 무기를 팔 것이고, 상

대가 무기를 갖고 있다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살 것이다. 무기로 서로 겨누다 보면 전쟁을 하게 된다. 전쟁을 하게 되면 피해는 엄청나게 크고 위험할 것이다.

-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다. 누군가를 해치거나 전쟁을 일으키려고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기가 필요한 것이고, 무기를 만들고 파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 진짜 무기가 아닌 장난감 무기는 팔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장난감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전에 대한 규칙을 충분히 지키면서 놀 수 있고, 사람에게 쏘거나 휘두르지 않으면서 놀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장난감 무기를 팔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난감 무기를 가지고 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함부로 하고, 공격하는 일에 대해 무뎌져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게임일까, 현실일까」를 읽고 전쟁 게임이 어떤지 생각해 보기

- 「게임일까, 현실일까」를 읽어 본다.
- 전쟁 게임이 어떤지 생각해 본다.
 - 전쟁 게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게임 속 인물을 때리거나 죽이는 것이 아무렇지 않아진다. 현실에서도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죽음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질 수 있을 것 같다.
 - 전쟁 게임은 자극적이고 중독되기 쉽기 때문에 헤어 나오기 힘들고 폭력성에 계속 노출될 것 같다.

정리 및 평가

1 정리하기

-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의 생각을 표현해 본다.

2 평가하기

-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의 생각을 표현했나요?

평가 기준	
상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중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하	주제를 파악하고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